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 주님의 규범

일 시 텅기 장로

칠십인 회장단

청년을 위한 CES 노변의 모임 • 2008년 1월 13일 • 브리검 영 대학교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제 아내와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한 것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교회 위성 통신망을 타고 32개의 언어로 방송되는 이 노변의 모임에 함께할 전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 봅니다. 저는 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리라 믿으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영을 느끼고 제 메시지를 이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청년 독신 성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나이가 좀 더 많은 분들은 몇 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직장이 있거나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다수가 귀환 선교사이며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널리 퍼져있는 영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

저는 제 말씀에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주님의 규범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의 첫 문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한 1844년에 그가 나부에서 한 유명한 설교에서 따왔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킹 폴렛이라는 교회 회원의 장례식에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나 박학다식한 말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로 여러분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려는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¹

제목의 둘째 문구는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규범은 교리와 성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내가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민족들을 속이며 나아감이라”(교리와 성약 52:14)

저는 창세 이전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단순한 규범의 진리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에 관해 읽을 때 배우게

되는 규범의 진리에 대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규범에 참여하고 싶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규범과 계획의 뛰어난 특징은 여러분이 영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하이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 이 규범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규범을 너무 심한 것으로 여겨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이 규범을 가르쳐왔습니다.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고 사랑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쉬운 것을 말하기 위해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이사야 30:20; 니파이후서 9:40 참조)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과 시간표가 지금 당장 선지자들의 권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려 영을 통해 감동과 영감을 받고, 여러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감동과 영감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제 말씀이 주님의 자녀, 특히 이 교회의 청년 독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뜻을 간증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가족 체제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제 값진 진주에 있는 모세서를 읽으면서 하늘에서 온 열 가지 단순한 진리를 살펴보고, 그 진리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떻게 규범이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주하고 사용하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첫째: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가꾸며 지키게 하고”(모세서 3:15)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온갖 종류의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여러 종류의 생명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 그곳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 부분을 가꾸고 돌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주하고 사용하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생활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수행하는 데 온전히 전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며 옹호하셨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이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고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입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된 복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모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특권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2.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두 번째를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모세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런즉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모세서 3:18)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 중 하나로,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배필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 중에서 우리에게 배필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남자에게는 아내가,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필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의미하신 바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필은 우리에게 적합한 혹은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배필의 앞이나 뒤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필과 나란히 걸어야 합니다. 배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절대적으로 동등한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해야 하는 것처럼 이브는 아담과 동등했습니다.

아담은 주님께서 그에게 배필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을 때 아직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과 궁극적으로 육체적 죽음을 초래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영원을 위한 배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성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 심사 숙고할 때, 영원을 위해 계획하십시오. 거룩한 성전에 가도록 계획하십시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십시오. 성전은 여러분이 배필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청년 형제들은 배필을 택하기 전에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면 훗날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될 것이며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성전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취소된 가족의 일원이거나 그러한 가족에 대해 듣거나 본적이 있는 회원들과 청년 독신 성인들을 만납니다. 그런 결과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일부 회원들은 결혼의 책임, 특히 성전 결혼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영원한 규범을 따르는 데 방해 받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영원한 진보를 원치 않는 사탄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동반관계와 기쁨을 줄 배필을 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품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해지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반자를 구하고 찾아야 할 필요성을 마음에 새기도록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을 공유할 이성과 교제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 발전과 교류를 위해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에 참여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의 종교 교육원은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서로 만나고 지도자의 자질과 재능을 발전시켜 여러분의 배필로 적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원하지만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청년 독신 성인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충실한 교회 회원은 한 때 여러 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와 아들들은 성전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로 “주님을 귀찮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동반자를 찾았으며, 성전 결혼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해지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언젠가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여정을 홀로 가지 않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의로운 동반자를 찾아야 하며 큰 신앙으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영원한 운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전진해야 합니다.

3. 구원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합하도록 가르친다.

모세서의 같은 장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이브를 만드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모세서 3:24)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세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로부터 받던 안전한 보호로부터 실제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룸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관계, 즉 남편이나 아내가 확고하고, 친밀하며, 흔들림 없이 결합하는 이 새로운 관계가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과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때로 부적절하게 일컫는 소위 “대체 생활양식” (역자 주: 일반적으로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생활양식) 문제에 관한 모든 혼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한 대체 생활양식 문제는 사탄의 조작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히 연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관계는 성전에서 집행되는 해의 왕국의 아름다운 의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약

안에서 태어났거나 성전에서 부모에게 인봉되었을 때,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필,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인봉될 때 재구성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배필과의 인봉이 부모와의 인봉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의 인봉은 더욱 강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즉 남자는 여자를, 혹은 여자는 남자를 선택하여 성전 인봉을 통해 주님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결정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서로가 합하는 것이 주님의 규범입니다. 다른 규범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4. 선택의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이것은 선택의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세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임이니라.”(모세서 3:17)

우리 각자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침해하는 의사 결정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지를 행사할 때 따르게 되는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규범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반역했으며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습니다.(모세서 4:3)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한 가지는 동반자를 찾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교제할 기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청년 형제 여러분, 아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남성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미루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기회”와 “허비한 기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동반자를 찾고 선택해야 하는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현대의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동반자를 찾으라고 권고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권고는 특별히 귀환 선교사와 학업에 정진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권고를 드리면서도 저는 여러분 중에 과거의 관계에서 실망스러운 경험을 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옳은 일로 보였던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목표가 다르다, 어울리지 않는 관계다, 너무 어려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옳은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 등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중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올바른 배필을 찾고 택하겠다는 소망을 굳게 가지십시오.

종종 선택의지에 영향을 주는 아주 미묘한 주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와 지도자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의지의 행사는 때때로 자신과 타인 모두의 개인적인 외모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따금, 사람의 첫 인상 때문에 그 사람의 참된 자아와 친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믿을만한 친구와 함께 앉아 다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의 육체적 외모를 개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친구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십시오.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이든, 체중을 줄이는 것이든, 혹은 헤어스타일, 차림새, 복장, 언행의 버릇, 개인적인 위생, 혹은 그 밖의 어떤 것이든 필요하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개선하십시오.

결국,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빛을 발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몸을 청결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건강하고, 순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모든 사람이 이 생에서 결혼할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저는 예외가 아니라 규칙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건강, 불충분한 기회, 또는 기타 다른 요인들 때문에 많은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완전한 복음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이 생에서 충실했으나 결혼할 기회가 거부된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 생에서 누리지 못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며 산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다섯 번째입니다. 다시 모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리니-이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이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모세서 4:25)

우리는 이 지구에 있는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며, 가족을 기꺼이 돌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직업을 얻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데 적합한 기술과 훈련을 습득할 훌륭한 기회와 독특한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는 영구 교육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금 위원회의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동반자와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며 교회 안에서 의로운 가족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기꺼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교육을 다 받으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6.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라는 진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 여섯 번째는 모세서에 나오는 다음 성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니라.”(모세서 5:2)

하늘에서 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자녀를 낳는 의무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나, 결혼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정해진 때에 부모가 되겠다는 소망을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지금은 장차 여러분의 가정에 오게 될 자녀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데 필요한 속성을 키우십시오. 주님의 지식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는 데 필요한 인내와 기술을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은 젊은 부부들에게 가족을 이루도록 더욱 힘차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가족을 이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던지시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 적당한 집과 가구와 편의 시설들을 마련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여가와 편의를 위한 여러 물건들을 장만할 때까지 연기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연기는 세상의 것이며 가족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선지자들은 생활 수단과 개인적인 건강을 포함하여 현 상황, 그리고 각 부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타 요인들을 고려한 후에 가족을 이루는 일을 연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되는 데 따르는 독특하고 특수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지하고 지원해주실 것임을 믿고, 인생의 이 단계로 내딛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의 가정을 떠날 때, 부모가 갖고 있던 모든 편의 시설을 얻을 때까지 가족을 이루는 일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름다운 집과 여러 가구들을 갖기까지는 여러 해, 심지어는 몇 십 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현재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가족을 이루고 조금씩 늘려가고 발전시키겠다는 신앙을 기꺼이 가져야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일하고 희생하기를 고대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여흥을 위한 물건들을 마련할 때까지 가족을 이루는 일을 미루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을 영원히 축복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와드나 지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 중에서 가장 오래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와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은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이 물질적으로, 특히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거의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가족을 이루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텅기 자매와 저는 제가 법대에 다니는 동안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았던 지하 아파트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생활하던 이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훨씬 못한 것이었습니다. 각 방문 천장에는 난방용 파이프가 있었으며, 파이프의 높이는 제 이마 중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그 파이프에 머리를 몇 번이나 부딪쳤는지 모릅니다. 텅기 자매도 커다란 붉은 수탉이 그려져 있는 벽지를 기억합니다. 텅기 자매는 그것을 “소름끼치는 벽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탁기가 없어서 18개월 동안 빨래방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살았던 두 번째 아파트는 두 가구가 거주하는 복식 아파트여서 하나의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욕실 문이 두 개였는데 각 아파트로 하나씩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아내가 그 아파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동이 간편한 접이식 침대에서 잤는데 몹시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용한 식탁은 접는 다리가 달린 카드놀이용 탁자였습니다. 그 탁자를 사용하던 시절, 제가 자주 무심코 다리 하나를 쓰러뜨리는 바람에 탁자와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아홉 살도 안된 아이들이 네 명이나 있던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침실이 두 개뿐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복적거렸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은 가장 즐거운 가족 추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의 결혼생활 초기에는 생활 필수품이 거의 없었으며 사치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으며, 가족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했으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4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필수품과 편의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많은 소유물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하면서 사랑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삶을 향해 기꺼이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 위치에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로 가족을 키우고 발전시키십시오.

7. 가족은 여러 세대의 가족을 형성하며 계속된다.

다음으로 다룰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는 자녀를 갖는 것뿐 아니라 후손을 갖는 것에 대해 아담과 이브가 세운 규범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담의 아들들과 딸들이 땅에서 돌씩 나뉘며 땅을 경작하며 양

때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들도 또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모세서 5:3)

우리는 여러 세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후손을 갖는 것, 부모가 되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되는 것은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에게 오는 풍성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교회가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는 경험 중 하나는 교회가 불과 수십년밖에 안 되는 곳에서 충실히 생활하는 여러 세대의 가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을 봅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한 곳에서는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곧 훌륭한 대가족,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느 나라이든 지역이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움을 줄 대가족말입니다.

시편에는 다음과 같이 아주 훌륭하게 묘사된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127:3~5)
여러분이 앞으로 20년이나 25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혹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무 살이라면, 마흔이나 마흔 다섯 살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여흥을 위한 물건들은 초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합니다.

그와 같은 광경이 실현되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스스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십시오.

8.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희생을 바친다.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면서부터 희생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그런즉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하니라.”
(모세서 5:6~8)

이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는 여러분이 부부로서 가족과 더불어 인생을 꾸려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그분께 바치십시오. 교회에서 충실하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십시오. 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분께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고 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이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리하여 겸손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함을 깨닫고 인식하십시오.

9. 이러한 희생을 통해 약속된 축복이 온다.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아홉 번째는 희생의 결과로 오는 축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와서 이르되, 나는 태초부터 또 이후로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독생자니라. 내가 타락하였으므로 구속될 수 있나니, 온 인류가, 곧 원하는 자마다 그러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 날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하게 되어 땅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뵈옵 것임이니라.”

“이에 그의 아내 이브가 이 모든 것을 듣고 기뻐하며 이르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더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하니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니라.”(모세서 5:9~12)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가 희생을 통해 받은 몇 가지 축복들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해주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주는 성신의 동반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에 관한 예언의 영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과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가족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온 기쁨과 축복을 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축복과 일들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후손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 약속이 실현되리라는 것과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10. 우리는 모든 성전 의식을 포함하여 복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단순한 진리는 성스러운 의식의 결과로 오는 축복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느니라.”

“그리고 이같이 모든 일들이 아담에게 거룩한 의식으로써 확인되었고, 복음은 전파되었으며,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있으리라고 선포되었느니라. 과연 그러하였느니라. 아멘.”(모세서 5:58~59)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열 번째인 이 성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범을 여러분이 따를 경우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물론, 회복된 교회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룩한 의식”이란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아름다운 성전 의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아름답고 단순한 하늘에서 오는 진리에 기꺼이 참여할 때, 모든 성전 축복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축복입니까.

영감 받은 권고를 따르십시오.

오늘 저녁 우리가 이야기한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 열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주하고 사용하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2.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3. 구원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합하도록 가르친다.
4. 선택의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5.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며 산다.
6.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7. 가족은 여러 세대의 가족을 형성하며 계속된다.
8.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희생을 바친다.
9. 이러한 희생을 통해 약속된 축복이 온다.
10. 우리는 모든 성전 의식을 포함하여 복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이 권고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결혼할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동반자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과 더불어 완벽을 향해 나아가 남편과 아내를 찾으십시오.

가족을 이루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가족을 이름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가족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가 올 세월 동안 가족을 강화하고 지탱해줄 멋진 추억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권고한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것은 얻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에 행함을 더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옳은 일과 의롭게 소망하는 일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있으며 제 인생에서 그 규범들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결정이 옳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속삭임을 받고 인도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옳다는 느낌을 확신시켜주는 평안과 영적인 증거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부부로서의 적합성이 교리와 성약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

“그리고 그때 너는 알게 되리니, 또는 이로써 너는 알게 되리니, 곧 의로운 것에 속한 것으로 네가 받을 줄을 내 안에서 믿는 신앙으로써 내게 원하는 것이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13~14)

더 이상 지진같은 음성을 구하지 말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소리는 들릴 것이며,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규범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하늘에서 오는 단순한 진리의 규범들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주

1. *History of the Church*, 6:303.